

2013 국제청년회의소 아·태대회 광주유치 주역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첫 유치 제안... 3년간 30개국 돌며 발품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JCI(세계청년회의소) ASPAC(아시아-태평양)대회(이하 JCI 광주 아·태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태평양 30여 개국 1만5000여명이 이 기간 동안 광주에 머무르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JCI 아·태대회의 광주 유치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유치하기까지는 광주지역 JCI회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지역의 젊은 CEO인 정원주(46) 중흥건설 사장이 있었다.

현재 JCI 아·태 대회 통합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사장이 JCI 아·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한 성공한 배경에는 고향인 광주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JCI내에서의 그의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됐다.

정 사장은 “지난 2008년 JCI 아·태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 뒤 다음 한국 내 유치 장소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 광주 유치를 처음으로 건의했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사장은 당시 한국청년회의소(JCI)의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유는 인프라 부족이었다. 대회를 열 수 있는 대형 컨벤션도 없고, 국내외에서 참가하는 회원들이 묵을 호텔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사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09년 국내 개최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이사를 광주로 초청, 1박2일 동안 설득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었다. 한국 JCI 안팎에서는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제주와 경주, 청주, 인천을 2013년 아·태대회 유치 지역으로 꼽았고, 광주는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JCI에서 쌓아온 회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전국의 중앙회장들을 1대1로 만나기 시작했고, 특히 대회 유치를 신청한 제주와 경주, 청주, 인천지역 회장과 JCI선배들을 직접 만나 광주 유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에는 간절했습니다. 2013년 대회를 광주에 유치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을 또 기다려야 하고, 잘못하면 영영 광주에서 국제대회 한번을 개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또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광주에 새로운 호텔도 들어설 계획이고, 컨벤션센터도 조만간 2관이 지어질 것”이라며 설득해 나갔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9년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JCI월드대회에서 세계 JCI리더들로부터 광주 유치에 대한 1차 확답을 받아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대회 유치를 탐내고 있어서 더욱 조바심이 생겼다.

정 사장은 대회 유치 기금 2억원을 조성에 광주지역 후배 회원들과 함께 1년에 6~7개를 도는 등 3년 동안 전 세계 30여 개국을 돌며 광주 유치 캠페인을 대대적



으로 벌였다. 결국 2011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광주 유치를 결정하는 인준을 받아냈다.

그는 “인프라 부족과 행정적 부분이 미흡해 대회 유치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진우 전 한국 JCI중앙회장장과 안성수 정책연구소장 등 지역의 많은 선배·후배·동료 회원들이 광주에 대한 애정함을 갖고 돕기 시작했고, 강은태 광주시장의 작·간접적인 도움과 광주관광컨벤션부로의 노력이 광주 유치에 밑거름이 됐다”고 공을 회원들에게 돌렸다.

한편, 정 사장은 광주 FC 대표이사(사)광주NGO시민재단 부이사장, (재)광주여성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의성 기반 선도형 성장” 일자리 65만개 창출

정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론 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중 산업구조의 추

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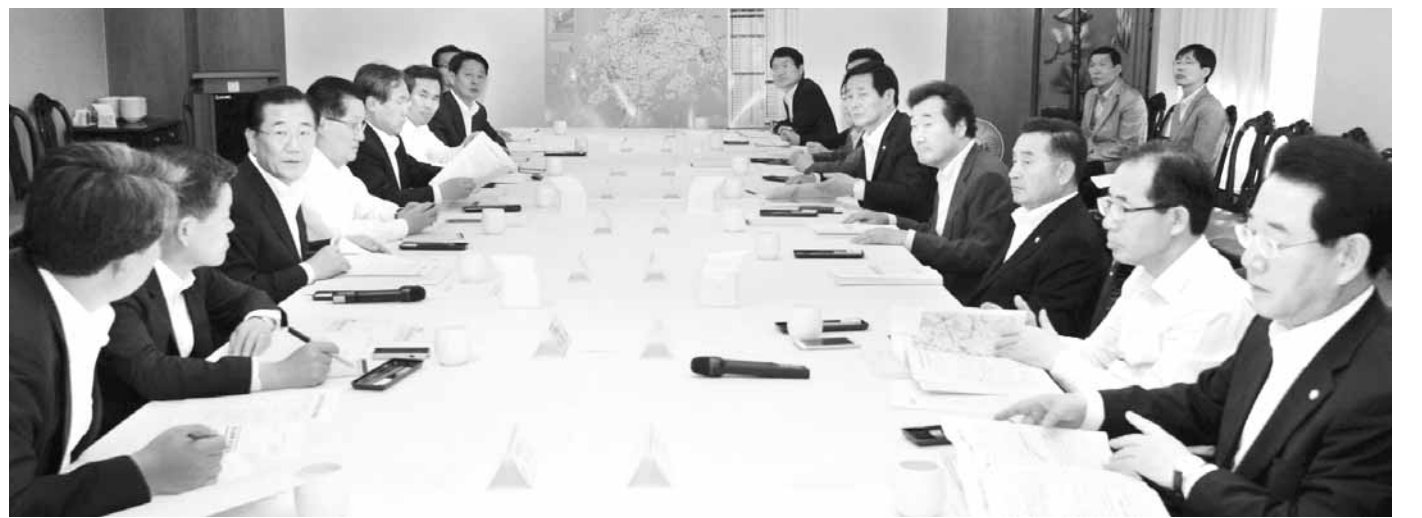
그는 이번 계획으로 64만~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부문까지 합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 구현등을 ‘3대 목

표’로 내걸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 9000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박준영 전남지사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지역 구 의원 10명, 통합진보당 의원 1명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도정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미래·동함평산단 부당 추진 공무원 중징계하라

감사원, 전남도에 요구

감사원이 미래산업단지과 동함평산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들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나주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 관법 채무보증과 분양·시공업체 수의계약 선정, 사업비 부당 집행에 따른 손실(16억원) 등의 책임을 물어 당시 기업지원실장인 위보 서기관에 대해 파면을 요청했다.

또 나주시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금 유치(수수료) 알선 명목으로 모 건설팀 업체에 3.5%인 77억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미래산단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 집행된 사업비 회수 등을 요구했다.

동함평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산단조성 관련 특별회계 미설치, 재정 투융자 심사 미실시, 지방회회 미승인, 공모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정도 과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영광 대마산단 이전을 미기로

수도권 모 업체에 허위서류를 내고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남도 투자정책국 김도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1면 '원전 성적서 위조'서 계속

실제로 우 의원 측이 확보한 새한티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 유효성 확인 조사표’에 따르면 새한티피가 고리 1·2호기, 신고리 3·4호기, 한빛(영광) 1·2·5·6호기, 신울진 1·2호기,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카 원전(BNPP) 1~4호기 등 국내외 원전 14기와 관련한 검증 용역을 실시했다고 지난해 7월27일 대한전기협회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는 안전성등급 케이블 성능 검증, 충전기, 인버터, 점압조정용변압기 성능 검증, 정지형차동절체스위치 기기검증, 비상발전기 등 원전의 안전 운행과 직결된 검증이 포함됐다.

아직까지 검증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점검 결과에 따라 원전 추가 중단 등 과장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검찰은 새한티피의 추가적인 조작 의혹 조사에 나섰다.

한편 한빛원전 민간합동대책위원회는 5일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된 한빛 3호기 정비 방식인 ‘덧씌움 보강용접’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독일 티유브이노르트(TUV NORD)의 안전성 검증 평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의 해당 업체인 새한티피와 연관된 부품을 확인한 뒤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광주의 맛과 멋, 세계에 알릴 것”

이경록 JCI 광주 아·태대회 집행위원장

이경록 JCI(세계청년회의소) 광주 아시아·태평양 대회 집행위원장은 5일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0개국 1만5000여명의 JCI회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라며 “모든 준비가 갖춰진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광주의 맛과 멋, 지역산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제주, 부산, 대구에서는 JCI 세계대회가 열렸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이다”며 “대회 기간 중 각 나라의 회원들과의 국제 친선 우호를 돈독히 하고, 광주의 산업을 알리는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도 함께 진행해 광주라는 도시 가치 및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8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등 184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지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앞서 국제대회 운영 경



험 축적은 물론 관광·쇼핑·숙박·음식 등 지역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제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주외진료부 ● 고계 주차장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무관
CNC M/C	0명	- 나이: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총원시 까지
- 급 여: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1) 이력서..... 1 통
2) 사진..... 2 매
3) 주민등록등본..... 1 통
4) 건강진단서.....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03@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사람을 찾습니다!

정환아!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린다.
속히 집으로 돌아오거라

성명 : 강정환
나이 : 28세

현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위 사람을 본적이거나 행적을 아시는 분은 급히 연락바랍니다.
후사 하겠습니까.

연락처 062)222-4476
062)232-2991~2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